

# “여름철 축사 화재·정전 피해 주의해야”

농진청, 냉방·환기 장비 가동 급증에 따라... 정기 점검 등 당부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축사 내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설비 고장과 과부하로 인한 화재·정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 365건 중 77%가 '전기적 요인(58%)'과 '부주의(18%)'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재는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전기 설비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축사 전기 설비 개보수와 안전 점검

은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노후 축사와 화재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배선과 차단기, 분전반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축산부서나 누리집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된다.

농가의 자가 점검도 중요하다. 플러그, 콘센트, 배선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먼지나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로 인한 누전 위험

이 커지므로, 전기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막을 씌우고, 차단기 작동 여부도 자주 확인한다.

축사 안팎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하고, 쥐나 해충이 훼손하지 못하게 배관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전은 가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연환기가 어려운 무창형 축사는 정전이 발생하면 환기가 중단돼 온도 상승과 질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고, 축사 전력 수요의 12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를 확보

해야 한다. 발전기 상태와 연료도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낙뢰도 화재와 전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낙뢰의 약 84%는 여름철(6~8월)에 발생한다.

산간이나 고지대 축사는 낙뢰 위험에 심하게 노출돼 있으므로, 피뢰침을 설치하고 사전에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 축사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올여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마철을 앞두고 농가에서는 전기 설비와 정전 대비 체계를 반드시 점검해 축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일 창립 제61주년을 맞아 노사 공동 新 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을 열고, 인권 보호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 노사 공동 新 인권경영현장 선포

전기안전공사, 현장 릴레이 낭독... '사람존중' 조직문화 다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일 본사 새물림홀에서 창립 제61주년을 맞아 노사 공동 新 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을 열고, 인권 보호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지난 2015년 인권경영현장을 제정한 이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올해 6월 기존 현장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사의 공공적 책무와 사업 특수성을 반영하고, 인권 침해 방지와 권리 보호에 대한 범위를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포식에서는 新 인권경영현장을 사장 노조위원장, 간부 대표, 직원 대표가 릴레이 방식으로 낭독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조항을 책임 있게 선포하였다.

남하영 사장은 현장을 지역 방향을, 배용준 노조위원장은 직원 권

익 보호의 의미를 간부 대표와 직원 대표는 인권경영 실천 주체로서의 의지를 각각 담아 선언하였다.

또한 행사에서는 '사람존중 인권경영 실천 다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모두를 위한 권리, 나도 함께 지켜갑니다'는 문구와 손바닥 이미지가 삽입된 부채를 함께 들어, 인권 보호와 연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다. 노사 공동 선언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가치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新 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은 공사의 인권 존중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오상근기자

## 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과 자원공유망 양해각서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2층 국민홀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시 긴급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공유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자원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재해 복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협약을 통한 기관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에는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용 정보자원 공유·지원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시 대응 강화 △IT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최신 정보화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이 포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양해각서(MOU) 체결로 그간 축적해온 정보시스템 구성 부품 등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자원 인프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 자원 공유망으로 재난예방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 전북은행, 지난해 서민금융지원 7524억원... 전체 은행권서 1위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중·저신용자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 앞장

전북은행이 지방은행은 물론 대형 시중은행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며 중·저신용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해 7524억원의 서민금융지원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은행권에서 1위에 올랐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9일 발간한 '2024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 youth,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실적에서 전북은행이 7524억원으로 지방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단순 수치 비교에 의한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고금

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북은행은 신한은행(7,458억원), 우리은행(6,784억원), 농협은행(5,981억원), 국민은행(5,932억원) 등 대형 시중은행들을 앞지르며 지역기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이 실질적인 서민금융 활성화와 포용적 금융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타 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신용등급 하위 50%이하의 중·저신용자와 국내 은행들이 취급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출 비중이 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의 67.9%에 달한다.

또한 개인신용등급 하위 10%이하로 정책서민금융 이용까지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별보증대출의 경우 전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오상근 기자

## 전주상의, 비엔나 출장 사무소 현판식 개최

월드옥타 비엔나지회와 협력 지역기업 유럽 진출 위한 전진기지 마련

전주상공회의소는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영산그룹 사옥에서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출장 사무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상의 의원단,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김준 비엔나지회장, 이덕호 오스트리아한인회 회장, 월드옥타 비엔나지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판식은 전주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



환으로 지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서 출장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다. 비엔나 사무소는 지난해 월드옥타(World-OKTA) 비엔나지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향후 유럽 전역에 걸친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옥타 비엔나지회는 유럽 내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안착을 돕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군산서 농·축협 채용설명회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5년 새만금 Job going with 2차 전지 채용설명회에서 전북농협 채용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개최되는 채용설명회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및 저임금 구조로 인한 우수 청년층 인구 유출문제에 대응하고자 진행되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 채용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취업 컨설팅, 금융특강,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북농협이 운영하는 부스에는 농·축협 입사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소개 및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농·축협 동시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져 농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해가 거듭할수록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취업시장에서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응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출을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